

## 충남 in, 여성人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프로젝트가 2기를 맞아 재정비에 들어간지도 3개월에 들어섰다. 1기를 시작하며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 도민정사회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특히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 정책 등을 토론의 장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간 일은 지방자치에 주권자를 참여하도록 개방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 분권과 참여, 소통, 균형발전을 위한 재 점검을 통해 구체적 지표의 성과를 높일 시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충남의 여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행복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발표된 것을 근거로 보려고 한다. 우선 행복의 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주는 총량지표의 향상과 함께 높아지는가이다. 물론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로 보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행복한 삶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 장치가 더욱 견고하게 놓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의 여성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의 실체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얼마 전 여성신문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4년간 180조원이었다. 사회적비용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므로 발생한 사회손실비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재원의 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즉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보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충남의 경우로 보면 불일치함을 볼 수 있다. 충남의 산업구조를 신중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1, 2, 3차 산업이 혼재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도 각 단위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전업농으로 종사할 수 없는 농사의 규모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고 지역의 산업구조 상 불일치로 인해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용직 등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2차, 3차 산업의 경우도 지역에서 양성하는 여성인재를 머물게 할 흡인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낮은 임금과 일시 취업의 형태를 수용할 고용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 얻는 경제적 편익과 모성활동을 위임하는 비용의 차이가 없거나 적을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은 장기화된다. 지방, 고용시장의 미충족, 개인적 경제활동의 욕구 증대 등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충남의 경우 행복한 변화의 중심에 여성을 세우고 여성이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다. 경제의 총량이 아니라 불평등하지 않을 때 비로써 행복함을 느낀다는 전제가 인정된 상황에서 여성 또한 주체적 개인으로 불평등이 해소되는 정책은 중요하다. 여성의 일, 가정 양립 OECD 꼴지 수준이라는 결과는 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외면하거나 또는 진단의 편협함이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충남의 대표 브랜드인 3농혁신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불평등한 현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서.북부권과 농공단지 등의 2,3차 산업 여성종사자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충남의 해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충남도민들의 상호 신뢰와 협동을 통해 충남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역동적인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첫 걸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에서 시도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정책에 충남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인을 고려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성과있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단위고 본질시킴으로 구호에 그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많은 여성정책을 제 정책에 통합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남의 내발적 힘을 만들어 내는 일은 성, 연령, 사회적 수준, 다문화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형평성있는 정책과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시키는 과정을 차근 차근 진행시켜 가야한다. 이런 과정에 충남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